

함평나비아구클럽, 전국대회서 훨훨 날았다

고창풍천장어배 유소년야구 우승 결승서 동탄베이스볼 11-1 완파 창단 후 전국대회 첫 우승컵 품어

함평나비아구소년야구스포츠클럽(이하 함평 나비클럽)이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서 창단 후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함평 나비클럽은 최근 고창스포츠타운생활야구경기장에서 진행된 '고창풍천장어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새싹부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48개 팀 56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새싹(8개팀), 연꽃(12개팀), 꿈나무(8개팀), 유소년(14개팀)부로 나뉘어 경기장에서 열정의 무대를 펼쳤다.

새싹부 연꽃 부문에 참가한 함평 나비클럽은 1회전에 만난 동탄베이스볼(DTB)을 6-2로 꺾은 뒤, 제천시 10-0 대승을 거뒀다. 안산 이레를 상대한 3회전은 14-3 승으로 장식하면서 새싹부 A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함평 나비클럽은 준결승에서 B조 2위인 충북 옥천군을 만났고, 팽팽한 접전 끝에 6-4로 승리하면서 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결승에서 '동탄베이스볼'과의 리턴매치가 전개됐다. A조 2위로 준결승에 올랐던 동탄베이스볼은 B조 1위 구구불독스를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함평 나비클럽은 재대결에서도 11-1 승리를 장식하면서 창단 후 첫 우승을 차지했다.

황필선 감독은 "전국대회에서 창단 후 첫 우승을



고창풍천장어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새싹부에서 우승한 함평나비아구스포츠클럽 선수들이 모자를 던지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차지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지도해 아이들이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박종희 회장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힘든 환경 속에 전국 규모 대회에서 좋은 성적까지 거둔 선수들과 지도자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LPGA 구단 대항전 여수 디오션CC서 17일 개막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시즌 개막을 앞두고 정상급 선수들의 경기력을 미리 감상할 디오션 비치콘도·발리틱립 골프구단 대항전이 오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여수 디오션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총상금 6000만원에 우승 상금이 3000만원이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KLPGA 구단 대항전은 골프에서는 드물게 단체 성적으로 순위를 가리는 게 특징이다.

1, 2라운드 1개의 볼을 2명의 선수가 번갈아 치는 얼터너티브 방식, 최종 3라운드는 두 선수가 각각 볼을 치되 더 좋은 위치의 볼을 선택해 다음 샷을 하는 스크램블 방식으로 치러 합산 타수로 순위를 결정한다. 라운드마다 각 구단은 2명의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

이벤트 대회지만 KLPGA투어 정상급 선수 40명이 출전한다.

출전한 12개 구단 가운데 박민지, 이가영, 정윤지 등 지난해 8승을 합작한 NH투자증권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김수지, 지한솔, 장수연, 박주영이 나서는 동부건설도 작년에 4승을 따낸 탄탄한 경기력에 경험 많은 베테랑 선수가 버티고 있어 전력이 NH투자증권 못지않다.

박지영, 조아연, 박현경으로 구성된 한국도지신타 골프단도 막강하다.

대회 방식과 6110야드로 좁은 코스 전장 덕분에 선수들은 버디를 노리는 공격 골프를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클린스만 입국...한국 축구와 동행 시작

24일 콜롬비아·28일 우루과이와 A매치 감독 데뷔전

한국 축구 대표팀의 새 사령탑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8일 입국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날 오전 5시 22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민국 A대표팀 감독이라는 기회를 얻게 돼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성공을 이어나갈 수 있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국 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이 같은 성적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게 업무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대표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 때도 방문했다. 또 2017년에는 아들이 20세 이하(U-20) 월드컵에 출전해 온 기억이 있다. 이런 여러 경험 때문에 한국, 한국인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고 한국 대표팀이라는 기회가 왔을 때 상당히 기쁜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표팀은 상당히 좋은 팀"이라고 평가하며 "나 역시 여러 가지를 배우기를 기대하고 있고, 거꾸로 팀도 우리와 함께 배워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FIFA 기술연구그룹(TSG)의 일원으로 차두리 FC서울 유스감독실장과 함께한 클린스만 감독은 "차두리 코치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팀의 모든 경기를 살펴봤다. 한국 축구는 지난 20~25년간, 거스 허딩크 감독부터 울리 슈틸리케, 파울루 벤투 감독과 함께 좋은 팀을 건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아컵 우승이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등 큰 팀을 이겼고, 과거 독일을 상대로도 이긴 경험이 있으므로 당연히 아시아컵 우승이 목표"라고 각오를 다졌다.



대한민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의 새 사령탑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날 한국 대표팀 감독에 선임, 축구협회와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3년 5개월의 계약을 맺었다.

그는 9일 오후 2시 파주 NFC(축구 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진행되는 취임 기자회견으로 첫 일정을 소화하며, 이어 곧장 자신의 데뷔전이 될 3월 A매치 두 경기를 준비한다.

한국은 24일 오후 8시 울산 문수축구장에서 콜롬비아를 상대하고, 28일 오후 8시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맞붙는다.

대표팀은 20일째 소집해 새 사령탑과 호흡을 맞추는 중이다. 관례대로라면 클린스만 감독은 13일에 소집 명단을 발표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첼시 안방서 도르트문트에 뒤집기...챔스리그 8강 진출

합계 2-1 승...벤피카도 8강행

첼시(잉글랜드)가 안방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를 상대로 역전극을 펼치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에 진출했다.

첼시는 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22-2023 UCL 16강 2차전 홈경기에서 라힘 스틸링과 카이 하베르츠의 연속 골에 힘입어 2-0으로 이겼다.

지난달 16일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1차전에서 카림 아데에미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0-1로 제 부담감을 떠안았던 첼시는 홈에서 뒤집기에 성공하며 3년 연속 UCL 8강에 올랐다.

첼시는 2020-2021시즌 통산 두 번째 UCL 우승을 차지했고, 2021-2022시즌엔 8강에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 승부차기 끝에 패한 바 있다.

이번 시즌엔 조별리그를 E조 1위로 통과한 뒤 16강전에서 도르트문트를 따돌려 2년 만의 정상 탈환 도전을 이어갔다.

이날 중앙 펠릭스와 하베르츠, 스틸링의 선발 공격진을 앞세운 첼시는 전반 43분 스틸링의 골로 합산 점수에서 균형을 맞췄다.

왼쪽 측면에서 벤 칠웰이 보낸 낮은 크로스를 스틸링이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려던 것이 제대로 맞지 않았으나 스틸링은 이후 수비를 제친 뒤 오른쪽 슛을 때려 골 그물을 흔들었다.

첼시는 후반 4분 상대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어 전세를 뒤집을 절호의 기회를 잡았으나 키커 하베르츠의 왼발 슛이 오른쪽 골대를 맞고 나가며 아쉬움을 삼키기도 했다.

하지만 하베르츠가 슛하기 전에 양 팀 선수들이 페널티 지역 안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돼 하베르츠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고, 다시 왼발로 골대 오른쪽 구석을 노린 하베르츠의 슛이 이번엔 정확히



8일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브리지에서 열린 첼시와 도르트문트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첼시의 골키퍼 케파 아리사발라리가 선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들어가며 첼시는 역전에 성공했다.

벤피카(포르투갈)는 홈에서 클럽프 브뤼허(벨기에)를 5-1로 완파, 원정 1차전(2-0)과 합계 7-1 대승을 거두며 8강에 안착했다.

벤피카는 지난 시즌에 이어 2년 연속 UCL 8강

에 진입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포르투갈 대표로 출전했던 벤피카의 곤살루 하무스가 전반 추가 시간과 후반 12분 멀티 골을 터뜨리고 전반 38분 하라 실바의 선제골 때 어시스트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대외비
2관	스즈메의 문단속
3관	서치 2, 카운트
4관	대외비, 명동이
5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콜 제인
6관	스즈메의 문단속, 코리도 3
9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7관	씨네커플 독톡톡, 6번 칸
8관	씨네커플 스즈메의 문단속,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바다 탐험대 옥토퍼스 육지수호 대작전: 열대우림을 지켜라!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3-01(수) ~ 2023-03-31(금)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합창단 특별공연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하는 판소리감상회
일시 : 2023-02-26(일), 2023-03-26(일) 15:00
장소 :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문의 : 062-526-0363